

신종코로나 확산에 수출기업·유통업 비상

금호타이어 비상체제 가동 주재원과 긴밀 연락 제주항공 中 노선 중단·동방항공 운항중단 검토 금호고속 터미널 세정제 비치·백화점 마스크 착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함에 따라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전선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역 수출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 또 항공업계는 물론 관광업·유통업·외식업 등 산업 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수출기업 등에 따르면 중국에 3개의 생산공장과 판매법인을 두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주재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난징(南京)·톈진(天津)·창춘(長春) 3곳에 생산공장을, 상하이(上海) 판매법인을 두고 있으며 주재원은 40여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중국 현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정부

의 대응에 맞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았던 지역 수출기업들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열린 예정이던 각종 박람회와 산업전시회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해외마케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판이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부터 무안~싼야, 무안~장자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중국 쓰촨항공도 무안~장자제 노선 운항을 1월 31일부터 멈춘다. 중국 동방항공도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자칫 무안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모두 막힐 처지에 놓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중국 노선의 환율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는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중국 내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 광주지역 주요 관광지점 내외국인 관광객은 814만7894명으로, 전년(844만5030명)에 비해 30만명(3.5%) 줄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무안~장자제 노선은 30일부터 운항하기로 했지만 취항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중국 노선 취소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고속과 지역 유통업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매장 소독 강화 등에 나섰다.

금호고속은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터미널과 버스 내에 세정제

를 비치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3일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장 곳곳에 손 세정제와 물티슈를 비치했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브랜드별로 자체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7개 이마트도 24일부터 고객센터와 계산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 측은 연휴 이후 확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전남 7개 이마트에서의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8.1%이나 뛰었다. 손 소독제(204.7%), 체온계(1198%) 등 관련 위생용품의 매출도 올랐다.

수도권 28개를 포함해 145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도 마스크 3만개를 고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한 폐렴' 공포에 금융시장 '출렁'

코스피 3%대 급락, 환율 8원 올라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면서 28일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41포인트(3.09%) 내린 2176.7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91포인트(2.40%) 내린 2192.22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7포인트(3.04%) 내린 664.70로 마감했다.

우한 폐렴 공포는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8.0원 오른 달러당 1176.7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9.8원 오른 1178.5원으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1176.7원으로 마칠표를 찍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국고채와 금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52%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1kg 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5만9700원에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마스크 쓰세요" 28일 광주은행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무료 마스크를 고객에게 주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

소형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2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6개월 이상 살면 해당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세입자도 후보 자격을 얻는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을 잃는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당면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또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의무관리대상이었지만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 의사결정 절차는 단순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금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31일 외부감사제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장선)는 오는 31일 금융감독원-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의사항 등 감사인 선임 제도를 설명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76.72 (-69.41) ↓ 금리(국고채 3년) 1.35 (-0.07)
- ↓ 코스닥 664.70 (-20.87) ↑ 환율(USD) 1176.70 (+8.00)



광주 학동센트럴시티 주택홍보관 31일 오픈

삼익세라믹·평화맨션 재건축 쌍용건설 시공

광주 학동 삼익세라믹과 평화맨션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재건축된다.

학동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광주시 동구 학동 676-35번지 일원에 있는 학동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주택홍보관을 오는 31일 연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추진위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정비 재건축사업 대신 비교적 간편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시공은 쌍용건설이 맡을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 동, 84㎡A·B·C형과 121㎡형 등 4개 타입, 총 920가구 규모다. 전 세대가 남향·동남향 4베이 최신 혁신설계로 적용된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돼 음성 명령으로 집안의 가전기구와 각종 정보를 홈 네트워크 서비스로 제공받는 최첨단

주거시스템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샤워시설 등이 계획됐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도 들어선다.

입지도 우수하다. 무등산 자락의 시원한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광주남초·운림중·조대부중고·조선대 등 교육 여건과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학동주민센터, 남광주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촘촘히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앞 중심사 입구역과 2순 환도로를 이용해 KTX역과 공항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학동센트럴시티는 스마트 인공지능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조우량 1군 건설사가 책임시공을 맡아 동구권 최고 명품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동센트럴시티 주택홍보관은 동구 학동 676-35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62-225-001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서창석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취임

KT 전남본부와 전북본부가 통합해 새로 출범한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으로 서창석 전무가 최근 취임했다.

서 본부장은 28일 "CEO 직속 조직으로서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고객 최우선 경영의 영업문화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KT전남전북광역본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영업·기술·조직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고품질의 통신인프라와 혁신기술을 적용한 5G 무선, GIGA 인터넷, TV, 유선전화 등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G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등 사업영역확장, 고객 편의서비스강화, 미래융합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성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서 본부장은 KT 수도권네트워크운용단 강북부선운용센터장, 네트워크기술본부장,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